

역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10> NH농협은행

100% 순수 국내자본 '토종은행' 농업인·나라살림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국내 유일 '농업전문 금융기관'
2012년 3월 주식회사로 재탄생
내실경영으로 안정적 성장기반
소통·상생 통한 시너지 극대화

NH농협은행은 1961년 출범해 100%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순수 민자본 은행이다. 전국 최대 점포망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관리하는 나라살림 전문 은행으로 자리매김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고객에게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2일 기존 종합농협 체계에서 분리해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등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하나 돼 농협은행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이뤄냈다.

농협은행은 이후 ▲내실경영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신사업 발굴로 지속적인 신(新)성장동력 확보 ▲소통과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 강화 ▲수익 극대화를 통한 농협 수익센터 역할 강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일류은행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농협은행은 올 1분기 44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이며 전년 동기 대비 8.9%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중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했음에도 거액 부실채권 정상화로 대손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8.9% (208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5556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뛰었다.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9.2% (4969억원), 수수료이익은 3.9% (272억원) 늘었다. 고정이자여신비율 0.29%, 대손충당금적립률 207.71%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 지표들도 크게 개선됐다.

지속적인 신(新) 성장동력 확보와 수익 극대화를 이뤄내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지난 4월 은행권 최초 PaaS 기반
뱅킹앱을 구현했



권준학 NH농협은행 은행장이 신입행원 5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본사 전경.

다. 모든 금융니즈를 하나의 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 '올원뱅크 차세대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카드, 보험, 증권 등 계열사 핵심서비스를 올원뱅크에서 윈스톱으로 제공하고, 소액 금 투자 등 생활금융 서비스를 확충해 오는 2023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조상진 농협은행 정보통신(IT) 부문 부행장은 "이번 사업은 뱅킹서비스에 PaaS 클라우드와 MSA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올원뱅크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초혁신 디지털뱅크'로 도약할 수 있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농협은행은 우선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CBDC 도입 시 원활한 유통·결제 기능을 수행

권준학 NH농협은행 은행장(오른쪽)이 '함께하는 우리농가 동행기업' 선정을 축하하는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도록 검증한다. 이후 CBDC의 핵심 인프라 전자지급 서비스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국내 유일 농업전문 금융기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농협은행은 '농업금융컨설팅' 등 다양한 농업인을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농업금융컨설팅'은 원예특작, 축산 부문 농업경영체의 경영상태를 명확히 진단해 개선책을 제시한다.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최적의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농협만의 특화된 무료 컨설팅서비스다.

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우리농가와 농식품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함께하는 우리농가 동행기업'을 선정해 왔다. 올해도 총 10개사를 선정해 여신 우대, 제품 판매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통해 선정기업이 우리농가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 농협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전략목표를 고객 중심 초혁신 디지털 뱅크 도약으로 선정했다.



조상진 NH농협은행 IT부문 부행장이 '올원뱅크 차세대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올원뱅크' 등 디지털전환 가속화
농업인 금융 컨설팅 등 서비스
초혁신 디지털뱅크 도약 청사진
공공·생활 넘어 미래금융 박차

이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로 범농협 수익센터 역할 강화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업금융에 특화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선도 ▲공공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위상 강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은행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강을 건너면 배는 두고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가까워서 갖고 가면, 본래의 장점이 단점이 돼 발목을 잡게 된다"며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정신으로 우리는 과거의 생각하는 방식과 일하는 법을 바꿔 근본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의 디지털금융을 향한 포부는 신입 행원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

권 은행장은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신입행원 5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특강에서 고객중심 초혁신 디지털 뱅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통, 화합, 경쟁, 배려의 새로운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협은행을 이끌어갈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른 뉴노멀(세계관의 변화, 기업가치의 변화, 실력기준의 변화, 주도세대의 변화)을 언급하며 신입행원들이 변화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농협은행은 향후 공공금융과 생활금융을 넘어 미래금융까지 선점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미래 금융을 선도할 디지털 뱅킹 서비스 역량 강화와 핀테크 플랫폼 기반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개방형 협업모델 확대를 통한 'NH디지털생태계' 구현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린 스타트업 플랫폼(Lean Startup Platform) 구축 등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